



눈잣나무 / Pinus pumila (Pall.) Regel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소나무속
과국명	소나무과

과명	Pin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소나무과 상록 침엽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속초시, 양양군, 인제군, 태백시 등 설악산을 기준으로 한 북쪽지역의 높은 산지대와 낮은 산지대의 중간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중국, 러시아 / 한국(강원도 속초시, 양양군, 인제군, 태백시등 설악산 이북의 아고산지)</p> <p>형태 : 상록 침엽 관목 또는 소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4 ~ 5m, 지름 15cm,</p> <p>꽃색 : 자주색</p> <p>개화기 : 6월, 7월</p> <p>잎은 바늘 모양이고 5개씩 모여 난다. 3개의 모가 진 선이 있으며 양면에 3~4줄의 숨구멍이 있다.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작은 톱니가 있다. 자라는 장소에 따라 잎의 형태가 색깔 등이 차이가 난다. 가늘면서 긴 나무도 있고 굵고 짧은 잎이 나타나기도 하며 잎의 색도 회록색 또는 짙은 녹색으로 차이가 난다.</p> <p>꽃은 6~7월에 피고,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. 수꽃차례는 타원 모양이고 10여개의 꽃이 가지 밑부분에 달린다. 암꽃차례는 달걀모양이고 자주색이며 2~3개의 꽃이 가지 끝에 달린다.</p> <p>열매는 구과고 달걀 모양으로 작다. 다음 해 9월에 익으며 초록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한다. 약 20개의 열매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. 씨앗은 달걀 모양이고 날개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. 높이가 낮아 열매가 달리면 야생 동물들이 쉽게 먹을 수 있으므로, 자연 상태에서 씨앗을 얻기는 어렵다. 나무의 겉모양은 둥근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이다. 줄기의 높이는 4~5m, 지름은 15cm 정도이고 평지에 심으면 곧게 자라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굽는다. 잣나무와 비슷하지만 땅을 긴다. 줄기의 가장 안쪽은 적갈색이고 껍질은 흑갈색이다.</p> <p>높은 산에서 자라는 고산나무이다. 공기 중에 습도가 높고, 땅이 깊은 장소가 적합하다. 기름지고 물빠짐이 좋으며 진흙이 적게 섞인 부드러운 땅에서 잘 자란다. 충분한 햇빛도 필요로 한다. 건조한 조건에는 잘 견디지만 대기오염에는 약하고 생장이 느린 편이다. 씨앗으로 번식한다.</p>